

## 환경성, 메이저정맥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

환경성은 경제성장의 여파로 폐기물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선진적인 폐기물처리·재활용기술 및 법·제도 정비 등을 통합한 패키지형태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현지 폐기물문제 해결을 통한 환경부하 저감은 물론 일본의 정맥산업 기반 강화 및 향후 일본의 희소금속 등의 자원전략에 기여하고자 함

- 아시아지역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의 잠재적시장을 창출·선점하기 위해 일본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기술을 제도와 패키지화하여 해외전개
  -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과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일본의 메이저 폐기물처리·재활용산업(정맥산업) 발전 및 나아가서는 희소자원 확보 등 자원전략에 기여
    - 2050년 전세계의 폐기물발생량은 2010년 대비 2.1배의 223억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며,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2020년 폐기물처리시장은 약 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    - 일본은 선진적인 폐기물처리·재활용기술이 정비되어져 있으나 국내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에는 한계에 도달
      - ※ 정맥산업 : 사용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, 재활용, 적정처리하는 산업
  - 폐기물처리·재활용시스템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에 전개함으로써 환경부하저감은 물론, 새로운 자원순환 비즈니스모델 창출의 환경이 형성되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

□ 폐기물처리·재활용산업의 아시아지역 진출은 침체상태에 있는 일본의 정맥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아시아지역의 적절한 폐기물처리·재활용대책에 필요조건이라고 판단

○ 미이용자원의 유효이용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차세대 정맥산업 메이저로 성장하여 해외진출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
 ①시민, 정부, 사업자 등에 의한 폐기물회수시스템 구축, ②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자원화사업 구축, ③폐기물 회수·재자원화시스템 전체의 채산성 실증사업 실시  
 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

- 폐전기·전자기기의 회수시스템 및 희소금속 재활용 구축
- 폐기물선별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형 재활용철 제조사업
- 저탄소형 폐PET병 회수시스템 구축 및 재PET병화 사업

<2011년도 정맥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업체>

주관기관	대상국가	기술지원대상국
E&E 솔루션즈	태국	폐기물의 집중중간처리시설 프로젝트
EJ 비즈니스 파트너즈	필리핀	고형폐기물의 광역수집·에너지회수·위생매립사업
市川환경엔지니어링	베트남	재생연료(RPF)제조 판매 및 RPF제조시스템 판매사업
NTT Data 경영연구소	중국	폐플라스틱 재생이용(material recycle)사업
JFE 엔지니어링	말레이시아	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건설 운영사업
일본환경설계	인도	소형가전제품(휴대용전화) 재활용사업
미쓰이금속광업	홍콩	전자제품 스크랩에서 동·귀금속 전처리사업

※ 정맥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아시아지역 국가간 국제협력 현황  
 (중국) 2007년부터 양국간 폐기물처리·재활용정책 협의  
 (태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필리핀) 2005년부터 3Rs국가전략책정지원 실시  
 (캄보디아, 방글라데시) 2005년부터 3Rs국가전략책정지원 실시

## □ 시사점

- 폐기물재활용 분야의 해외진출, 특히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제도가 아직 미정비상태인 경우가 많음. 한편, 일본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산업체(정맥산업체)는 해외진출을 모색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제도적, 폐기물처리 실태파악 및 비용 분석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온적임
- 그러나 최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과의 다양한 양국간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정한 폐기물처리 및 3R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, 선진기술을 가진 일본의 정맥산업의 아시아진출 촉진으로 국내의 새로운 자원순환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포화상태에 있는 일본의 폐기물처리·재활용산업의 돌파구 마련

자료 : 日系静脈産業メジャーの育成・海外展開促進事業推進, 環境省(2011.8.23)